

發明家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정책을

鄭榮春

〈삼성전자 기술고문〉

금년에도 더욱 성황리에 KOEX에서 전국우수 발명품 전시회가 열렸다. 이 전시회는 전국의 발명가들과 아마추어 발명인 또는 기업에서 창의적인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해서 독창적인 것들을 선보이는 발명계의 소중한 행사였다.

요즘같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가능성과 원리를 찾아 창조적 문명의 이기(利器)를 창출해 보고자하는 노력은 발명가의 숭고한 정신적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정책당국의 간축 안정정책의 여파로 최근 경제 성장률이 11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경제활동의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지만 결코 정책적 고삐의 영향만은 아닌듯 싶다.

언젠가 부터 우리사회에는 근면한 의지와 전문성을 추구하며 노력하는 각 분야의 건장한 열정가들을 소중히하고 존경하는 덕목과 풍토가 희박해져가고 있는것 같아 안타깝다. 특히 요즘같은 과학기술 경제전쟁속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쌓고 창의적인 두뇌와 집념으로 새로운 기술창출과 경제적부흥을 가능케하는 발명가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일찌기 발명가를 소중히 하고 존경하는 나라치고 못사는 나라가 없다. 미국, 일본을 비롯 서구 선진국들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문화예술의 창작가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창작자인 발명가들을 많이 배출했고 소중히 대

접했다. 이러한 나라들은 발명가의 업적을 찬양했고 발명가의 창조적 노력과 정신적 가치를 더욱 아꼈던 것이다.

그리고 발명가들은 꿈같은 일들을 현실로 이루어내어 그 나라의 국민과 인류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으며 문명의 변혁을 가능케하고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발명가의 정신은 자연법칙을 잘 이용하여 아직까지 세상에 없거나 진부한 것을 새롭게 창출하고 진보시켜 인류 행복에 공헌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다. 우리도 이러한 정신을 신중히 하여 발명가 정신을 과학 기술계에 붙여넣고 기업과 국민정서에 심는다면 우리는 다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저력을 다져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를 찾는 아이디어 단계까지를 포함하는 발명정신은 조금만 머리를 써서 독특한 아이디어만을 갖고도 잘 성공할 수 있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고 뜻이 깊은 사람은 고도의 발명을 하여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과거 70년대에는 노동력 창출의 근면성과 오직 “잘 살아보세”의 새마을 운동으로 어느정도 성공하였으나 요즘 사람들은 더럽고 추하고 어려운 일은 안하려한다. 그러나 이러한 3D기피현상을 탓하고 꾸념만 할때가 아니다. 이제는 창의적인 발명정신으로 과학기술 산업시대의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 점차 선진국들은 재화와 노력을

이용한 제품의 부가가치 창출경쟁을 지양하고 신기술과 노하우를 상품화하고 특허제도를 무기화하여 엄청난 기술사용료와 기술판매 대금을 거두어 가고있다. 이른바 연구, 두뇌집약 산업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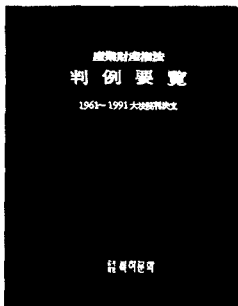
콘텐츠, 항공, 선적 등이 필요없는 기술무역은 서류가방 또는 서류봉투 하나로 수백만 달러 이상의 거래도 가능케 한다. 최근만 해도 미국의 발명가 네멜슨과 하이엇은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 가전업체에게도 반도체와 컴퓨터에 사용된 기술료 청구를 해서 최소한 수천만 달러 이상의 엄청난 댓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우리의 독자기술이 없는 상품을 세계시장에 내다 팔아 보았자 영똥한 나라의 발명가나 기업에 기술료를 마치고 나면 손해 보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우리도 개인적인 전문 발명가는 물론 발명가 차원의 고급 기술 두뇌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선진 기업들을 주목 할 때다. 신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자국의 특허제도를 앞세워 전개되고 있는 국제 경제전쟁의 양상을 보면 발명을 중시하는 풍토가 아쉽다는 생각을 절감한다. 사실 아무리 많은 공학도와 석학을 사회에 배출하고 그들을 각 연구소와 기업에서 유치한다 해도 창의적인 능력과 발명정신이 없다면 그러한 사회와 기업은 별 희망이 없다. 또한 우리사회의 일각에서는 과학과 발명을 같은 염주로 보는 통념이 있는데 과학기술자와 발명가는 엄연히 다르다. 발명은

자연의 법칙과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작업이며 과학은 자연의 원리, 현상 또는 이미 발명, 발견된 것들을 합리적 방법으로 체계화 시키는 학문이다. 따라서 발명은 이론적 학문과 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창조에 도전하는 두뇌와 신념의 작업인 것이다. 우리는 발명가의 독창적인 발명을 장려하고 그 발명을 체계화 시키고 이론으로 정립시킬 수 있는 학계의 학문적 실력과 상품화 시킬 수 있는 산업계의 기술이 서로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발명, 과학, 기술계의 일대개혁과 국가적 정책이 절실히 요청된다.

가까운 일본은 이미 100년 전부터 발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발명의날 기념 행사를 천황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치루고 있으며 동경 중심 변화가에 발명회관이 있고 군단위까지 발명협회 지부를 두고 있다. 이러한 발명풍토 속에서 배출된 일본의 수많은 공학도와 학자 그리고 국민들이 발명가 정신을 갖고 독창적인 창의력과 실력을 발휘했기에 오늘날 선진 경제 부족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우리는 뛰어난 두뇌와 창의적인 민족적 자질을 발명정신으로 되살려 경제부흥의 새로운 지형을 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사회와 기업은 훌륭한 발명가를 발굴 육성하고 정부는 발명의 날을 다시 부활해서 "발명의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는 장려정책에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다. <♣>

신간안내

「産業財産權法 判例要覽」



도서출판 특허문화는 1961년부터 1991년까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모음집인 「産業財産權法 判例要覽」을 발간했다. 이 책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特許申告事件은 물론이고 民·刑事 등의 판례 전문·핵심이 되는 부분을 발췌하여 法律條文別, 內容의 性格別, 判決宣告日字 순으로 편집되어 있어 이용하기 쉽고, 나날이 늘어나는 知的財産權 紛爭에 도움이 되는 실무서이며, 이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법령의 이해를 높일 수 있게 엮여져 있다. (도서출판 특허문화(565-0205)(4×6배판, 470면, 20,000원)